

1. <보기>를 제시하는 이유

<보기>가 따로 제시되는 문학 문제는 주어진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실이나 비평 등을 더 주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작품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피게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는 2005학년도부터 시행된 7차 교육과정의 목표를 담고 있으나 과도기적 단계인 2002학년도 수능부터 이미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보기>가 제시되는 이유는 작품을 평면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다른 사실이나 견해에 비추어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비평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출제하는 이유는 교육 과정에서 문학 작품에 대한 학습이 단순히 내용에 대한 정리나 사실 암기로 끝나버리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사실과 비평을 중심으로 새롭게 해석되는 학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이다. <보기>의 내용으로 외적 준거를 주고 작품을 새롭게 이해하게 한 것도 이러한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여러 가지 자료에 제시되는 기준을 통해 문학 작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이 문제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2. 제시된 <보기>와 선택지의 관계에 따른 문제의 유형 (+선택지에 대한 분석적 이해)

일반적으로 <보기>는 작가, 작품이 창작된 현실, 제목이 갖는 의미, 작품의 형식이나 표현 등 다양한 기준들이 외적 준거의 성격을 띠고 제시된다. 그러므로 <보기>만을 보고 이러한 문제의 유형을 나누기는 어렵다. 설사 내용의 유사성을 토대로 유형을 나눈다고 할지라도 이는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하지만 철저한 분석을 통해 다시 이를 분류해 보면 <보기>와 선택지의 관계에 따라 크게 <보기>의 기준과의 일치 여부만 따져도 정답이 나오는 문제와 <보기>의 기준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지문에 대한 이해도 함께 해야 정답이 나오는 문제로 분류할 수 있다.

문제의 구성 원리만 살펴보면 당연히 후자의 경우가 난이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으나 7차 교육과정의 목표와는 달리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외적 준거를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수험생들이 기출문제를 분석한다고는 하지만 단순히 풀고 해설지를 읽어보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문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게 낮은 정답률을 나타내고 있다.

3. 그렇다면 해결책은?

작품을 이해하기에도 벅찬데 <보기>까지 나오니 수험생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싫어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구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제시된 작품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반겨야 할 것이다. 문학 지문과 관련해서 <보기>가 제시되는 문제의 경우 대부분 <보기>를 통해서 또는 <보기>의 관점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해석할 것을 요구하므로 이러한 문제의 경우 우리는 반드시 <보기>를 먼저 읽고 지문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문에 대한 이해와 <보기>에 대한 이해가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채 “따로 국밥”이 되기 쉬우며 지문을 읽을 때 <보기>의 내용을 통한 깊이 있는 이해는 절대 불가능 하다. 심지어 <보기>의 기준을 이해하지 않고 지문을 읽었을 경우 <보기>의 기준과는 상반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문제 풀이에 대한 순서부터 숙지해 뒀야 한다. 이는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본론으로 돌아와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 문제에 임해야 하는 것일까? 출제 원리와 해결 원리는 다르기에 지금부터 강조하는 내용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풀 때 항상 여러분의 머릿속에 갖춰져 있어야만 하는 체계이고 이러한 시스템을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구축하지 못한다면 또 틀리거나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한다. 앞서 분석을 통해 <보기>가 제시되는 문제를 2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보기>의 기준이 명확하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보기>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채 그냥 줄글 읽듯이 대충 읽고 선택지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선생님의 눈에는 폭탄을 몸에 두르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다음으로 첫 번째 유형의 문제는 <보기>의 기준만 적용해도 답이 손을 흔들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선택지를 빨리 훑어보면서 <보기>의 기준에 맞지 않는 선택지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첫 번째 유형의 문제라면 이러한 과정만 거쳐도 벌써 답은 나올 것이나 두 번째 유형의 문제일 경우 선택지 모두가 <보기>의 기

준을 만족하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수험생들! 특히 지문을 읽기 전에 <보기>를 먼저 읽고 그 기준으로 작품을 감상하지 않고 거꾸로 지문을 읽고 방금 <보기>를 보고 선택지로 들어온 학생들에게는 선택지 모두가 다 맞는 것처럼 여겨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수험생들은 주관적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한다. 별별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가며 틀린 선택지를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차라리 찍어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기>의 기준은 단지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유도하는 것에서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와 관련된 부분은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다. 다 맞는 것으로 인정하고 지문 안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따져야 한다. 이 때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잘못하면 정답 시비의 소지가 있기에 거의 상반된 내용들을 제시하므로 사실 이 유형의 경우에도 과정이 좀 복잡할 뿐 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문제를 통해 이를 살펴보고 더 확실하고 완벽한 해결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자.

첫째 마당

[2014학년도 수능 6월 모평 B형 43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920년대 문학의 전개 과정에서, 염상섭은 개인의 발견과 현실 인식이라는 소설의 근대적인 특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인칭 시점을 적용한 소설을 통해 개인의 내면을 드러내는 방식을 모색하여, 개성의 표현으로서의 문학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하였다 나아가 그는 생활 현실에 근거한 문학으로 관심을 확장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문예는 생활의 기록이요, 흔적이요, 주장이다. 생활에 대한 염상섭의 새로운 인식은 생활의 표현을 통해 삶의 문제를 총체적인 시각에서 조망하려는 근대 문학의 정신에 접근하고 있다.

- ① 시속의 '처세술'에 대해 성찰하여 평가한 점을 통해, 생활의 문제에 대한 작가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생활 철학'을 터득하려는 개개인의 의지를 옹호한 점을 통해, 개인의 발견에 관한 작가의 의식을 이해할 수 있겠군.
- ③ '지금의 우리 생활'을 '봉건적' 의식과 문화에 견주어 문제 삼은 점을 통해, 삶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조망하려는 작가의 시각을 엿볼 수 있겠군.
- ④ 일상적 관심사로 오르내리는 '화젓거리'를 이야기한 점을 통해, 생활의 흔적을 기록하려는 작가의 노력을 살필 수 있겠군.
- 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나'가 서술하도록 설정한 점을 통해, 개성을 표현하는 문학의 방식을 모색하는 작가의 관심을 찾아볼 수 있겠군.

번호	정답	오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43	②	40.9%	9.5%	54.7%	9.4%	8.9%	8.3%

<보기>의 외적 준거 (소설의 근대적인 특성)	
준거1: 개인의 발견	준거2: 현실 인식
일인칭 시점을 적용한 소설을 통해 개인의 내면을 드러내는 방식 ⇒ 개성의 표현으로서의 문학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	생활 현실에 근거한 문학으로 관심을 확장(문예는 생활의 기록이요, 흔적이요, 주장) ⇒ 생활의 표현을 통해 삶의 문제를 총체적인 시각에서 조망

- <선택지>
- ① 준거2 ⇒ 준거2
 - ② 준거2 ⇒ 준거1
 - ③ 준거2 ⇒ 준거2
 - ④ 준거2 ⇒ 준거2
 - ⑤ 준거1 ⇒ 준거1

[2002학년도 수능 37번] <보기>의 관점에서 (가)~(다)를 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우리나라의 노래는 음란스러워 말할 것이 못 된다. ‘한림별곡(翰林別曲)’과 같은 노래는 방탕한 뜻이 있고 거만한 데다가 외설스러워 숭상할 바가 아니다. 이별(李躄)이 지은 노래가 세상에 널리 전하는데, 이것이 더 낫다고들 한다. 하지만 세상을 우습게 알며 공손한 뜻이 없는 데다가 온유(溫柔)한 태도가 적어 애석하다. 요사이 나는 한가롭게 지내며 병을 고치는 틈틈이 마음에 감동된 것을 한시(漢詩)로 나타내곤 했다. 그런데 한시는 읊조릴 수는 있지만 노래가 되지는 않았다. 마음에 감동된 것을 노래로 부르려면 반드시 시속(時俗)의 말로 엮어야 한다.

- 이황. 도산육곡 발(陶山六曲跋) -

- ① (가)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담고 있어 좋군.
- ② (나)는 세상을 호탕하게 살려는 의지를 담고 있어 좋군.
- ③ (다)는 음란하거나 외설스러운 태도가 없어 좋군.
- ④ (가)와 (다)는 한가롭게 지내는 가운데 느낀 감동을 표현해서 좋군.
- ⑤ (나)와 (다)는 시속의 말로 지어져 노래할 수 있어 좋군.

×	○
음란, 방탕, 거만, 외설	공손, 온유, 한가롭게 지내면서 느낀 감동, 시속의 말

[2004학년도 수능 55번] <보기>는 (나)를 배운 후, ‘시조의 정형성이 지닌 의미’에 대해 탐구한 내용이다. 이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시조의 3장 형식(의미의 3단 구성)은 어떤 기능을 했을까?
 - ‘말’로 지어지고 불려지는 상황에서, 정해진 형식이 표현의 부담을 줄여 줌. → 신속하게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음.
- 왜 이런 형식이었을까?
 - 의미의 3단 구성은 고전 시가 장르 전반에서 두루 확인되는 특성임. → 이를 양식화한 것이 시조의 형식임. → 학습이 용이하고 적용 범위가 넓음.

- ① 시조를 즉석에서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은 형식이 고정되어 있어서 가능했겠군.
- ② 시조를 잘 짓기 위해서는 작품을 통해 형식을 내면화하는 과정이 필요했겠군.
- ③ 시조의 형식은 다른 시가의 구조를 파악할 때도 유용한 참조가 될 수 있겠군.
- ④ 시조 작가는 내용에 앞서 형식을 창안하느라 힘들었겠군.
- ⑤ 규칙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가능하게 한 것이겠군.

번호	정답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55	④	66%	10%	10%	8%	66%	6%

[2009학년도 수능 31번]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님의 침묵」에서 ‘노래’와 ‘침묵’은 화자와 ‘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시어이다. 한용운은 시 「반비레」에서 “당신이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는 때에 당신의 노랫가락은 역력히 들립니다그러 / 당신의 소리는 침묵이예요”라고 했다. 침묵이라는 부재의 상태에서 ‘님’의 실재를 본 것이다. 화자는 ‘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는데, 시 「나의 노래」에서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계신 님에게 들리는 줄”을 안다고 했다. 이는 화자가 자신의 노래에 ‘님’과 근원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노래가 제 곡조를 못 이긴다는 것은 ‘님’이 침묵하는 상황을 화자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야.
- ②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는 것은 화자가 부재 속에 실재하는 ‘님’과 깊이 교감한다는 뜻이야.
- ③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나아간다고 한 데서 ‘사랑의 노래’가 자연 친화적임을 알 수 있어.
- ④ 침묵을 휩싸고 도는 노래가 ‘사랑의 노래’라는 것은 침묵이 끝나야 사랑이 비로소 시작되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
- ⑤ 침묵하는 ‘님’에게서 노랫가락을 역력히 듣는다는 데서 ‘사랑의 노래’가 화자의 노래가 아니라 ‘님’의 노래임을 알 수 있어.

번호	정답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31	②	82%	6%	83%	3%	5%	4%

처사가 말했다.

“제가 한 딸을 두었으나 십육 세가 되도록 혼처를 정하지 못하였삽기로 천하를 떠돌다가, 다행히 존문에 이르러 아드님을 보니 마음에 드는지라. 여식은 용렬하고 재주가 없으나 존문에 용납될 만하니, 외람하오나 혼인을 정함이 어떠하오이까?” 상공이 ‘처사의 도덕이 높으니 딸 또한 영민하리라.’ 생각하고 답했다.

“존객은 선인이요 나는 속세 사람이라. 어찌 인간 세상 사람이 선인과 혼인을 의논하리까?”

처사가 답했다.

“상공은 아국 재상이요 나는 미천한 인물이라. 미천한 인물이 귀대에 청혼함이 극히 불가하오나 버리시지 아니하오면 한이 없을까 하나이다.”

공이 즐겨 즉시 혼인을 허락했다.

이때, 상공이 친척들을 모아 정혼한 일을 이야기하니 부인이 의아해 하며 말했다.

“혼인은 인륜대사라. 어찌 재상가에서 의논도 없이 근본도 모르는 집안과 경솔히 혼약을 하시나이까?”

하고 의논이 분분하자 공이 말했다.

“내 들으니 처사의 딸이 재덕을 겸비했다 하기에 혼약했으니 괜한 시비 마시오.”

차설, 이때 혼인날이 임박하자 혼구를 찬란하게 차려 하인들을 거느리고 금강산으로 길을 떠날새, 공은 위풍이 당당하고 시백은 풍채가 빛났다. 이런 경사에 친척과 하인 등이 웃지 않을 자 없고 조정에서도 눈박이 그치지 않더라.

여러 날 만에 금강산을 찾아가니, 풍경도 좋거니와 때도 마침 삼춘이라. 좌우 산천 바라보니 각색 화초 만발한데 봉접은 펴펴 날아 꽃을 보고 춤을 추고, 수양버들은 늘어졌는데 황금 같은 피꼬리는 환우성(喚友聲)*이 더욱 좋다. 경치를 구경하며 점점 들어가니 사람 발자취가 없는지라. 하는 수 없이 주점을 찾아가 쉬고 이튿날 다시 발행하여 산곡으로 들어가니 인적은 고요하니 볼 수 없고, 층암은 층층하여 병풍을 둘러친 듯, 시냇물은 잔잔하여 남청을 부르는 듯, 비죽새는 슬피 울어 허황한 일을 비양하는 듯, 두견성은 처량하여 사람의 심회를 돕는지라. 공이 자기가 한 일을 돌아본즉 도리어 허탄한지라. 후회막급이나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다가 날이 저물어 다시 주점에서 쉬고, 다음날 산곡으로 들어가니 심산곡곡에 갈 길은 끊어지고 물을 곳은 전혀 없었다. 길 위에서 방황하다가 바위 위에 노승을 의지하고 앉아 허황함을 자탄하더니 홀연 산곡에서 노랫소리 나며 초동 수삼 인이 나오거늘 반겨 길을 물으니 초동이 답했다.

“이곳은 금강산이요, 이 길은 박 처사 살던 터로 통하는 길이운데, 우리 지금 박 처사 살던 곳에서 내려오나이다.”

공이 기뻐 또 물었다.

“처사는 집에 계시더냐?”

초동이 대답했다.

“옛 노인이 말하기를 ‘수백 년 전에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나무를 엮어 집을 짓고 열매를 먹으며 칭호를 박 처사라 하고 살았는데 돌연 간 곳을 모르겠다.’ 하고 말씀하는 것만 들었지, 지금 박 처사가 산단 말은 금시초문이로소이다.”

공이 이 말을 듣자 정신이 더욱 아득하여 말했다.

“처사가 그곳에서 살던 때는 몇 해나 되었나뇨?”

초동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계서 산 지가 사백 년이라 하더이다.”

하며 다시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가거늘 공이 더욱 막막하여 하늘을 바라 크게 웃으며 차탄했다.

“세상에 허무한 일도 많도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 하는 수 없어 주점에 돌아와 머물새, 시백이 부친을 위로했다.

“옛날 한(漢) 무제도 선술을 구하다가 마침내 구하지 못하고 쓸쓸히 돌아왔으니 후회해도 소용없사운지라. 도로 돌아감만 같지 못하오이다.”

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 그저 돌아가도 남에게 웃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돌아가지 않은즉 허황함이 막심한지라. 내일은 곧 전안(奠雁)* 날이니 부득이 내일만 찾아보리라.”

하고 이튿날 노복을 데리고 다시 길을 재촉하여 반일토록 산중을 왕래하여 찾더라. 그날 오후에 한 사람이 갈건야복으로 죽장을 짊고 백우선으로 얼굴을 가리고 유유히 산곡에서 내려오니 반갑기도 그지없다. 일행이 고대하던 중,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반가워 눈을 씻고 다시 보니 박 처사가 분명한지라.

- 작자 미상, 「박씨전(朴氏傳)」 -

* 환우성: 벗을 부르는 소리.

* 전안: 전통 혼례 진행 절차 중의 하나.

49.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고전 소설은 현실 세계와 초월계의 교섭을 통해 신성성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미학적 원리로 삼는다. 고전 소설은 초월계가 천상에 존재한다고 하면서도, 그 공간을 현실 세계의 연장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초월계를 현실 세계보다 상위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은 수직적 사고의 소산이며, 초월계를 현실 세계의 연장으로 설정하는 것은 수평적 사고에 해당한다. 초월계는 본래 인간의 접근이 쉽지 않은데, 수평적 사고를 취하면 그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박씨전」은 현실 세계와 초월계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공간으로 ‘금강산’을 설정하고, 그곳에서 천상 존재인 ‘박 처사’의 딸 ‘박씨’와 현실 세계의 존재인 ‘이시백’의 혼인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수직적 사고를 수평적 사고 속에 아우르고 있다.

- ① ‘부인’이 ‘상공’의 혼인 결정을 수긍하지 못하는 것은 수직적 사고의 결과이군.
- ② ‘박씨’와 ‘이시백’의 혼인 장소로 금강산을 설정한 것은 신성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군.
- ③ ‘상공’이 ‘박 처사’를 쉽게 찾지 못하도록 한 구도에서 금강산이 지닌 초월계의 성격을 찾을 수 있겠군.
- ④ ‘박 처사’와 ‘상공’이 금강산에서 만나는 장면에서 초월계와 현실 세계의 소통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겠군.
- ⑤ 초월계의 선인이면서도 현실 세계에서는 ‘박 처사’로 불린 인물의 모습은 금강산의 이중적 성격과도 연관되는군.

번호	정답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49	①	58%	58%	10%	9%	7%	16%

[2013학년도 수능 6월 모평 36번] <보기>를 참고하여 위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임진록」은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역사 군담 소설로서, 역사에 허구를 더해 전란으로 인해 상처받은 민족적 자존감을 보상하면서 전란의 피해와 책임에 대한 민중들의 생각과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이한 능력을 지닌 주인공을 통해 조선인의 우월성을 드러내거나 때로는 역사적 근거가 부족한 가공의 사건을 형상화하기도 했다.

- ① 사명당의 복수를 통해, 국토가 유린되는 과정에서 받은 민중들의 고통을 보상하고 있군.
- ② 초인적 능력을 지닌 사명당의 모습을 부각하여, 왜에 대한 조선인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군.
- ③ 부사에 대한 하인의 비판적인 발언을 통해, 전란 후 지배층에 대한 민중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군.
- ④ 왜왕이 항복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 주어, 전란으로 훼손된 민족적 자존감의 회복을 꾀하고 있군.
- ⑤ 양반 대신 승려 사명당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전란 후 종교를 중심으로 상하층이 단결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군.

번호	정답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27	②	77%	2%	77%	13%	3%	4%

[2013학년도 수능 49번]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나)는 작자가 문관(文官) 등과 남산에 놀이 가기로 약속했으나 그들이 모두 약속을 지키지 않자 결국 혼자 가게 된 경위와 심정을 노래한 것이다. 제1수부터 제5수까지 ‘작자-문관-작자-또다른인물-작자’ 순으로 인물이 달리 등장하고 있다. 희곡에서 등장 인물들이 대화를 주고 받는 것처럼 각각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일상적 시어를 사용하여 당시의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① 제1수에서 제5수까지 화자를 바꿔가며 극적 요소를 가미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제1수의 요청과 제2수의 불응, 제3수의 요청과 제4수의 불응이 반복되어 서로의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 ③ 제1수의 화자의 의도를 제5수에서도 드러내면서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④ 제3수의 중장과 제4수의 초장에서는 일상적 관용 어구를 사용하여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⑤ 제4수의 중장과 종장에서는 생활 속 삶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번호	정답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27	②	77%	2%	77%	13%	3%	4%

둘째 마당

[2014학년도 수능 6월 모평 A형 43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구운몽」은 ‘회의(懷疑)와 부정(否定)’의 과정을 통해서 서사가 구성된다. 작품 초반에 성진이 세속에 호기심을 갖는 모습은 불교적 가치관에 대한 ‘회의와 부정’에서, 결말에 이르러 다시금 불교적 삶을 택하는 모습은 세속적 삶에 대한 ‘회의와 부정’에서, 마지막 육관 대사의 성진에 대한 가르침은 참·거짓의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회의와 부정’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세 번의 ‘회의와 부정’은 작품에 순차적으로 등장하여 「구운몽」의 주제를 한층 심화시킨다.

- ① ㉠은 ‘첫 번째 회의와 부정’을 경험하기 전의 일이다.
- ② ㉡은 ‘첫 번째 회의와 부정’과 ‘두 번째 회의와 부정’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 ③ ㉢은 ‘두 번째 회의와 부정’을 경험한 직후의 일이다.
- ④ ㉣은 ‘세 번째 회의와 부정’ 단계의 핵심 내용을 보여주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 ⑤ ㉤은 ‘두 번째 회의와 부정’에서 ‘세 번째 회의와 부정’으로 나아가고자 함을 의미한다.

번호	정답	오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43	①	49%	47.4%	15%	6.6%	9.6%	12.2%

[2004학년도 수능 54번] <보기>의 관점에 따라 (나)를 해석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보 기>

우리는 흔히 어떤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그림 같다’고 감탄한다. 이러한 감탄은 우리가 은연중에 풍경을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이미지나 관념과 비교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조선조 시가의 작가들은 실제 풍경뿐 아니라, 실제 풍경을 볼 때 동원되었거나 실제 풍경으로부터 촉발된 ‘마음 안의 풍경’까지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마음 안의 풍경’은 당대 그림이나 다른 문학 작품 등에서 추출되고 재구성된 것으로, 작가의 주관에 따라 이상화된 관념적인 풍경이다. 이러한 마음 안의 풍경을 그려 내고자 했다는 점, 작가 자신마저도 그 풍경의 일부이고자 했다는 점은,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고전 시가를 이해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다.

- ① ‘원근이 그림이로다’의 ‘그림’은 마음 안의 풍경을 의미하겠군.
- ② ‘녹준’을 놓고 ‘뗏’을 기다리는 화자도 풍경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야외’는 화자의 마음 안 풍경을 떠올려 주는 실제 풍경이겠군.
- ④ ‘승지’는 작가가 꿈꾸는 이상적인 자연의 모습을 의미하겠군.
- ⑤ 당대 다른 작품에도 ‘취병’, ‘녹수’, ‘반송’ 등의 시어가 등장할 수 있겠군.

번호	정답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54	③	41%	16%	10%	41%	12%	22%

[2007학년도 수능 30번] <보기>는 (가)에 대한 심화 학습을 위하여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참고하여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백과사전】

이육사: 시인. 1904년 경상북도 안동 출생. 항일 독립 투쟁으로 20여 차례의 투옥 끝에 베이징 감옥에서 옥사함.

·작품 경향: 저항 의식, 실향 의식과 비애, 초인 의지와 조국 광복에 대한 열망 등을 주제로 삼고 있음. 정제된 형식미와 안정된 운율감을 보임.

·「교목」: 1940년 『인문평론』 7월호에 발표.

【국어사전】

교목: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게 자라는 큰 나무.

【인터넷 자료】

『맹자』에 따르면, ‘교목’은 오랜 세월 덕을 닦아 임금을 도(道)로써 보필하여 나라를 떠받치는 신하를 의미한다.

·시인은 빈궁과 투옥과 유랑의 사십 평생에 거의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었다. 문학청년은 아니었으나 삼십 고개를 넘어 시를 쓰기 시작했고, 혁명적 열정과 의욕을 시에 의탁해 꿈도 그려 보고 불평도 터뜨렸던 것이다.(『육사 시집』 발문)

- ① 이 시의 제목은 나라를 위한 시인의 절개와 기상을 표상한 것이다.
- ② 이 시의 행 배열과 연 구성에서도 이육사 시의 형식적 특성을 찾을 수 있다.
- ③ ‘낮은 거미집’은 시인의 고난에 찬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 ④ ‘끝없는 꿈길’은 시인의 혁명적 열정과 의욕을 함축하고 있다.
- ⑤ ‘바람’은 이국을 떠돌던 시인의 실향 의식과 저항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번호	정답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30	⑤	65%	8%	12%	10%	5%	66%

[2008학년도 수능 17번]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하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69%)

<보 기>

김수영은 1955년 6월 성북동에서 서강으로 이사하였다. 서강에서의 생활은 피폐해진 그의 몸과 마음을 점차 회복시키고, 그로 하여금 오랜만에 안정을 누리게 했다. 그가 이전과는 달리 생활에 대한 긍정을 시에 담아내었던 것도 그러한 안정과 관련이 깊다. 하지만 생활에 대한 시인의 긍정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줄곧 이상과 현실을 문제 삼으면서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느껴 왔던 시인은 다시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겨 내려고 애를 썼다. 이러한 서강에서의 생활은 1959년에 발표된 「사령(死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 ① ‘자유’는 시인이 추구하던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어.
- ②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은 이상을 묵묵히 실천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겠어.
- ③ ‘고요함’은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시인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④ ‘육된 교외’는 서강에서의 생활에 대한 시인의 성찰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
- ⑤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함축하는 말이겠군.

번호	정답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17	②	69%	4%	70%	6%	8%	12%

[2010학년도 수능 33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61%)

<보 기>

「승무」는 무녀(舞女)를 무대 공간의 중심에 배치하여 관객이 이를 바라보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무녀와 그의 춤을 초점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빛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 작품에는 지상과 천상, 상승과 하강, 생성과 소멸의 속성을 지닌 다양한 빛이 등장하여 무녀의 외양과 행위, 더 나아가 내면세계를 비추고 있다. 이 빛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고, 관객이 무대와 인물을 관조하거나 그것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① 어두운 ‘밤’ 은 무녀를 비추는 다양한 빛의 양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관객의 관심이 무녀에게 집중되게 한다.
- ② ‘흐르는 빛’ 은 여러 빛들에 비추어진 무녀의 낮빛으로서, 상승 이미지를 통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③ 말없이 녹아내리는 ‘황촉불’ 과 기우는 ‘달’ 은 하강과 소멸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유한한 인간 존재를 떠올리게 한다.
- ④ 6연의 천상의 ‘별빛’ 은 번뇌에서 벗어난 초탈의 세계를 환기하면서 승화의 의미로 이어지게 된다.
- ⑤ 7연의 ‘별빛’ 은 무녀의 눈과 연결되어 그녀가 지향하는 세계와 내면세계를 서로 이어 준다.

번호	정답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33	②	61%	3%	62%	11%	15%	9%

[2013학년도 수능 20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도시에 처음 입성한 이들은 자신의 꿈과는 다른 현실에 직면하여 심리적 혼돈 속에서 크게 위축된다. 도시는 문명의 화려함을 내세워 그들을 매혹하지만 안정된 삶의 장소를 내주지는 않는다. 도시 문명에 가려진 도시의 이면적 풍경, 인정이 메마른 도시인의 초상, 그리고 도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 등이 어우러져 도시 소설의 한줄기를 이룬다.

- ① ‘창수’ 가 ‘다리 밑’ 풍경조차도 ‘행복일 수 있지 않느냐’ 고 여기는 데서, 도시의 이면적 실상을 직시하지 못하는 인물의 의식을 엿볼 수 있군.
- ② ‘창수’ 가 도시의 풍경에 대해 ‘밤낮 본다면 물리고 만다’ 고 한데서, 혼돈에서 벗어나 도시 문명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군.
- ③ ‘창수’ 가 ‘자전거 종소리’ 에 허둥대는데도 계속 놀림을 당하는 장면에서, 도시에 입성한 인물이 현실에 직면하여 처하는 불안정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군.
- ④ ‘창수’ 가, ‘어른같이’ 묻는 물음에 선뜻 답하지 못하는 장면에서, 도시에 처음 입성한 인물이 겪는 심리적 위축 상태를 볼 수 있군.
- ⑤ ‘창수’ 가 ‘집으로나 다시 내려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대목을 통해, 꿈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혼란을 겪는 이의 마음을 엿볼 수 있군.

번호	정답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20	②	69%	13%	69%	4%	3%	11%